

# 7 月의 채소재배

이 경 회

(건국대학교 농대교수)

## 1 고추밭 관리

고추는 기온이 높고 건조가 심하면 낙화, 낙뢰, 낙과현상을 초래하며 또한 생육이 정지되어 착뢰및 개화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건조기에는 관수를 충분히하여 생육을 계속 활발하게 하여야 한다. 7월부터 이를 충실히 실시하여 낙화, 낙뢰, 낙과류를 줄여 8월20일경까지 개화수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년내에 고추가 붉어질수있는것은 8월20일전에 개화한것에 한하며 그 이후에 개화한것은 착색치 못하기 때문이다. 즉 고추의 완전착색에는 일정한 적산온도가 필요한데 대개 1000~1300℃의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장마기에 들면 고추과실에 고추무름병이 나타난다. 이는 주로 과실에 발생하며 과실이 무를때 고추담배나방이 침해한 상처를 통하여 발생하여 과피가 수침상 암록색으로되고 풀자루같이 되었다가 부패하게 된다. 공중습도와 기온이 높을때 고추 담배나방의 상처로부터 들어오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고추담배나방을 완전히 구제하여야 한다. 살균제를 동시에 살포하여 무름병의 방제로 겸하여야 방제효과가 높다.

고추담배나방은 년 2회 발생하나 그 발생이 불규칙하여 제 1회 발생은 5월하순~8월중순이며 제 2회는 8월상순~10월

3순이다. 월동은 땅속에서 번데기 상태로 한다.

고온기의 식물체는 허약한데 이러한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증이 급속하게 나타나 피해가 많다. 따라서 고추담배나방의 구제뿐만 아니라 진딧물을 방제하여 바이러스를 피하게하는데도 큰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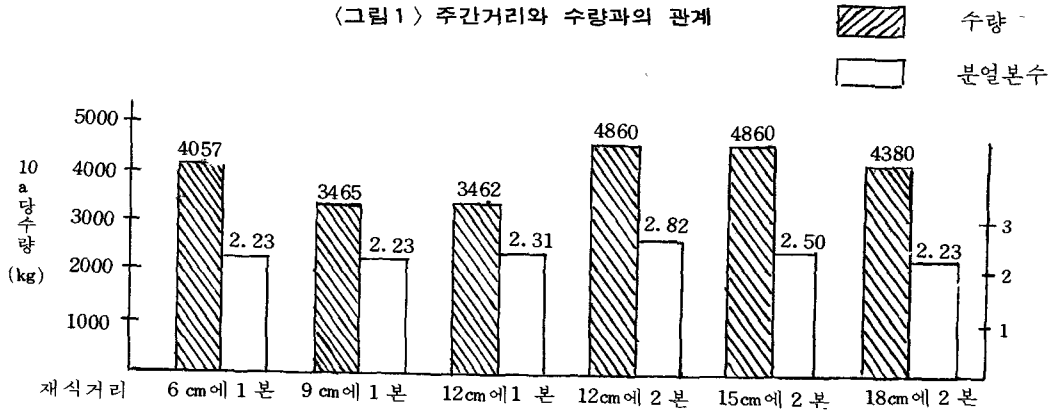
## 2. 파의 정식

파는 일반적으로 비옥하고 중성에 가까운 토양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석회를 충분히 사용할수 있으며 토양에 부식질이 많은 곳 이라야 한다. 그리고 줄기파의 경우 복을 높게 출수있어야 하기때문에 배수가 잘되며 흙이 부드러운 충적토이면 더욱좋다. 그리고 파는 특히 건조를 싫어하므로 보수력이 좋은곳을 택하여 정식한다. 가을에서 초겨울에 걸쳐 수확하게되는 줄기파는 충적토 화산회로 지대나 사질양토등 경토가 깊고 흙이 가벼워서 파의 뿌리가 복토한 밑에서도 파고 들어가 기 좋은 토질 이어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파를 연작하게되면 특히 연부병이 심하게 발병하므로 1~2년 파나 양파를 심지않은곳을 택함이 좋다.

배추뿔그루로 심을 경우에 배추에 연부병이 심하게 난경우 후작인 파에도 연부병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병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석회를 충분

〈그림 1〉 주간거리와 수량과의 관계



히 시여하고 발을 3회정도 7일간격으로 갈아주면 병도 적어지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좋아져서 유리하다.

출기과를 심을경우 재식거리는 사질토양에서는 이랑나비 1m 정도 식질토에서는 75cm 정도로 하고 심을 끝은 나비 15cm 길이 15cm 정도로 한다.

출기과를 심고 엽초부를 연백할 경우는 파낸끝에 7~8cm 간격으로 2~3 포기씩 심는것을 표준으로 한다.

모는 충실한것만 골라서 심는데 고랑을 한쪽에 끈게 밀착시켜 심는다. 모를 심는 방향은 고랑에서도 해가 닿지않는 그늘쪽에 세워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활착이 빠르고 연백부가 굵어지지 않는다.

처음 3cm가량 복토하고 전조할때는 짚이나 퇴비 따위로 그위를 덮어 전조를 방지하는것이 좋다. 이때 그림 1에서와 같이 얇게 심는구가 깊게 심는 구보다도 초장 분얼수및 (주당 엽수등에서도 우수하다. 왜냐하면 파는 친근성작물(淺根性作

物)로서 토양에의 공기 유통이 좋아야 한다. 따라서 깊게 심으면 공기 유통이 부족하여 새뿌리의 발생이 불량하여 활착이 늦고 근근의 발육분포가 불량하므로 감수 및 품질이 저하한다.

파는 끝에 심기 때문에 기비를 시여하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다량의 기비를 시여하면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요소중 질서와 인산의 비효가 크고 특히 인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들보다 더욱 효과가 현저한것은 퇴비의 시용이다. 시비를 들면 표1과 같으며 1회 추비는 정식 후 10일 2회추비는 1회보다 20~25일후에 3회 추비는 최종 복토시에 행한다. 기비로 이용하는 인산질 비료는 퇴비와 혼합하면 인산의 비효가 더욱 효과적이다.

### 3 딸기 육묘

딸기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좋은 모종을 길렀다가 정식 하여야 한다. 채묘방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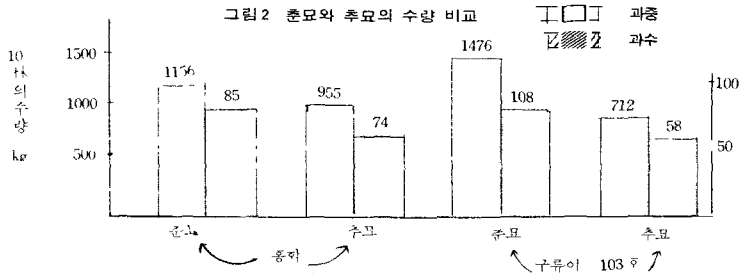
〈표 1〉 관행시비량 홍적토양시비 (10a 당)

비 료	총량	기비	주 비			비 고
			1 회	2 회	3 회	
퇴 비	3000 kg	1000 kg	2000 kg	- kg	- kg	질소 25.0 kg 인산 25.0 가리 30.0
요 소	33	8	-	17	8	
용성인비	120	50	70	-	-	
염화加里	43	10	-	23	10	
뽕 거름	2000	-	-	1000	1000	

는 6~7월에 채묘 하는것과 9월경에 채묘하나 6~7월에 채묘하여 육묘 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즉 그림 2에서와 같이 어느 구종을 막론하고 6~7월에 채묘한 춘묘(春苗)가 유리 한것이다. 춘묘

는 6월하순~7월중순경에 런너를 채취 하여 육묘하는 것인데 이방법은 주로 추운지방에서 많이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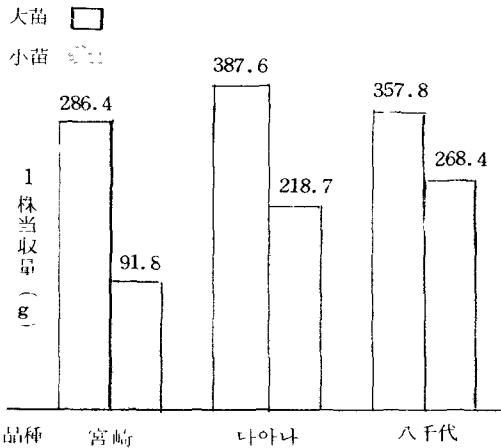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때에 묘를 채취하여 10월까지 두게되면 묘가 노화해서 좋



지 못하다. 추묘(秋苗)는 9월 상중순에 채묘하여 가식하는 방법인데 온난한 지방에서 행한다. 이 방법은 육묘하기가 쉽고 비교적 안전하며 묘령이 어리기 때문에 과실이 크고 수량도 춘묘에 비하여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3cm 정도의 포복경을 붙이는 이유는 묘상에 심을때 흙에 삽입하여 모를 안정시키기 위한것이다. 심는방법은 묘상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한그루씩 심기도 하나 능률적이고 비교적 활착이 좋은 방법은 팽이로 골을 파서 묘를 소정의 간격으로 1열로 정렬하여 가볍게 복토한다. 복토할때 특히 주의할점은 묘의 순을 덮지 않게 하여야 묘의 발육이나 화아의 현상이 좋다.

〈그림 3〉 묘의 대소와 수량 1주당



10a 당 묘의 소요 본수는 보통 담리작의 경우 3500~4000본 밭에 심을 경우는 6000 9000 본내외이다. 묘상에 심는 재식거

〈표 2〉 苗床의 시비 (10a 당)

구분	총량	기비	추비	3요소
완숙퇴비	300kg	300kg	- kg	질소 : 1.0kg 인산 : 0.9 가리 : 0.8
부숙하비	100	100	-	
과인산석회	5.0	5.0	-	
염화加里	0.8	0.8	-	
요소	1.0	-	1.0	

묘의 크기는 그림 3에서와 같이 큰묘가 작은묘에 비하여 수량이 많은데 이것은 큰묘 일수복 정식시 엽수가 많고 뿌리가 잘 뻗어서 겨울 추위와 건조에 강하기 때문이다.

리는 최초 12×9cm 정도로 하며 다음번에는 15×12cm로한다.

채묘 방법은 무병하고 건조한 묘를 택하여 런너를 모주(母株)쪽으로 3m 정도의 포복경을 붙여서 채묘한다 이와같이

묘상의 휴폭은 90~120cm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비료는 묘를 심기전에 퇴비와 준비를 사용하여 묘상을 만드는데 묘상의 시비례를 들면 표 2와 같다.